

水逆證으로 진단된 기능성소화불량 환자의 오령산 치험 1례

강정휴, 배지용, 공경환
세명대학교 한방내과

A Case of a Functional Dyspepsia Patient Diagnosed with Water Reversal Syndrome Treated with *Oryeong-san*

Jeong-hyu Kang, Ji-yong Bae, Kyung-hwan Kong
Dept. of Korean Int. Med,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on a patient suffering from nausea, vomiting, and headache.

Methods: We applied herbal medicine (*Oryeong-san*, *Wiryeong-tang*) and acupuncture to the patient. Clinical symptoms were assessed with a numeral rating scale (NRS).

Results: After treatment, the nausea, vomiting and headache symptoms were improved, and the NRS score showed improvement.

Conclusion: This case shows that Korean medicine treatments are effective in alleviating the symptoms of nausea, vomiting, and headache.

Key words: nausea, vomiting, *Oryeong-san*, water reversal syndrome

1. 서론

오심(Nausea)은 인두와 상복부에서 느끼는 불쾌한 느낌을 말하며, 구토(vomiting)는 장관과 흉벽 및 복벽 근육 수축으로 인해 상부위장관 내용물이 강제로 입을 통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1,2}. 오심과 구토는 기질적 또는 기능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흔한 증상으로 다양한 질환에서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자세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원인 없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구역과 구토를 기

능성 구토로 분류하기도 한다³.

오심 구토의 양약 치료에는 다른 기질적인 원인이 배제되면 도파민 D2 길항제로 위장운동을 촉진하는 Metoclopramide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항히스타민제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사용되기도 한다. 구토는 위점막의 자극상태 및 위질환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며, 그 외에도 대장염, 복막염, 담석증, 腎石症 또는 중추신경계질환, 뇌막염, 뇌종양, 뇌염, 신경성으로 구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⁴.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자세한 병력 청취와 적절한 검사를 통하여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다른 질환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⁶. 일반적으로 구토의 치료는 수액 등으로 탈수 및 전해질을 보충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 투고일: 2020.09.11, 심사일: 2020.11.02, 게재확정일: 2020.11.03
· 교신저자: 공경환 충북 충주시 상방4길 63
세명대학교충주한방병원 한방내과
TEL: 043-841-1732 FAX: 043-856-1731
E-mail: kong124@hanmail.net

기본 원칙으로 하며,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약물 또는 수술적인 치료도 병행할 수 있다⁷.

한의학에서 '嘔吐'는 위로 들어간 음식이나 기타 위 내용물이 다시 입으로 나오는 병증으로, '有聲有物 謂之嘔', '有物無聲 謂之吐', '有聲無物 謂之噦'로 구분할 수 있다⁴. 外感, 內傷 및 기타 원인을 막론하고 '胃氣上逆'함으로 인해 발생하며 크게 外邪犯胃, 飲食失調, 停痰留飲, 情志不和, 脾胃虛寒 등으로 변증한다⁴.

또한 《傷寒論》에서는 『中風發熱 六七日不解而煩 有表裏證 渴欲飲水 水入則吐者 名曰水逆 五苓散主之』라 하여, 구갈이 있어서 물을 잘 마시지만 물이 들어가면 토하고, 토하고 나면 또 갈증이 나고 하는 것을 水逆이라고 변증하여 구토의 증상을 설명하고 있다⁵.

이에 특별한 기질적 원인이 없는 구토환자를 水逆으로 변증하여 五苓散을 투약한 결과 오심, 구토 및 두통이 감소한 것을 관찰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증례

1. 대상환자

평소 별무 흡연 및 음주하는 62세 남환으로 2020년 03월 중순경 별무 동기로 오심, 구토 및 두통 증상 발하여 2020년 03월 중순경 Local 내과에서 별무 진단받고 처방약 복용 5일 후 증상 완화되었다가, 2020년 03월 30일경 증상 악화되어 상기 내과에서 약처방 받고, 2020년 03월 31일경 충주소재 ○○방사선과에서 Brain CT 상 별무 진단받고, 2020년 04월 01일경 충주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액 처치 받고 증상 유지되던 중, 2020년 04월 03일 한방내과 외래를 통해 본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상기 증상으로 5일 가량 공복 상태였으며 입원 당일에도 3-4차례 구토가 발생하였다. 기타 사항으로는 2018년

10월경 Achilles tendon rupture로 수술 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가족력은 없었다. 연구 진행 및 동의서 면제에 관해서 생명윤리위원회(2008-03)의 심의를 거쳤다.

2. 검사소견

- 1) Vital sign : 혈압 110/70 mmHg, 체온 36.6 °C, 맥박수 72회/분, 호흡수 19회/분
- 2) EKG 검사 : Sinus bradycardia, Otherwise normal ECG
- 3) Chest PA : Normal
- 4) Abdomen Supine/Erect : Normal
- 5) Brain CT : Normal(타원 검사, 2020년 03월 31일)
- 6) Lab finding : <CBC> MPV 9.0 ↑, Mono% 11.0 ↓ <BC> t.bilirubin 1.4 ↓, t.Chol 285 ↓, LDH 413 ↓, LDL-Chol 203 ↓ CRP 0.0, <UA> Ketone +/-

3. 한방치료

- 1) 침치료 : 동방침구제작소 제품인 직경 0.25 mm, 길이 30 mm인 1회용 Stainless 毫針을 사용하여 1일 2회 시술하며, 留針은 15분간 하였다. 치료 혈위는 百會, 合谷, 太衝, 內關, 足三里, 上腕, 中腕, 天樞를 直刺法으로 시행하였다.
- 2) 한약치료 : 오심, 구역, 두통 증상의 호전을 목표로 水逆으로 변증하여 2020년 04월 03일 저녁부터 2020년 04월 08일 아침까지 五苓散 (Table 1)을 2020년 04월 08일 점심부터 2020년 04월 10일까지 胃苓湯 (Table 2)을 처방하여 2첩 3팩을 1일 3회로 복용하도록 하였다.

Table 1. Prescription of *Oryeong-san*

Herbs	Scientific name	Dose (g)/day
澤瀉	<i>Alisma orientalis</i>	20 g
白朮	<i>Atractylodes lancea</i>	12 g
茯苓	<i>Poria cocos</i>	12 g
豬苓	<i>Polyporus umbellatus</i>	12 g
肉桂	<i>Cinnamomum cassia Presl</i>	4 g

Table 2. Prescription of *Wiryeong-tang*

Herbs	Scientific name	Dose (g)/day
白芍藥	<i>Paeonia lactiflora</i>	8 g
白朮	<i>Atractylodes lancea</i>	8 g
豬苓	<i>Polyporus umbellatus</i>	8 g
赤茯苓	<i>Poria cocos (Schw.) Wolf</i>	8 g
蒼朮	<i>Atractylodes lancea (Thunb.) DC.</i>	8 g
厚朴	<i>Magnolia officinalis</i>	8 g
陳皮	<i>Citrus reticulata Blanco</i>	8 g
澤瀉	<i>Alisma orientalis</i>	8 g
甘草	<i>Glycyrrhizae Radix</i>	4 g
肉桂	<i>Cinnamomum cassia Presl</i>	8 g
生薑	<i>Zingiber officinale</i>	12 g
大棗	<i>Zizyphus jujuba</i>	8 g

3) 양방치료 : 환자가 NPO를 하였던 2020년 04월 03일부터 2020년 04월 05일까지 대한 5%포도당가 생리식염액 1000밀리리터에 판비콤프주와 제일제약 아스코르브산 주사액 5%를 Mix하여 IV Inject하였으며, 기타 양방 치료나 약 복용은 없었다.

III. 결 과

1. 증상의 호전도 측정 및 비교

2020년 04월 03일-2020년 04월 10일까지 본원에서 입원 치료하였다. 2020년 04월 03일, 2020년 04월 06일, 2020년 04월 08일, 2020년 04월 10일의 구토 및 두통에 대한 NRS(Numeric Rating Scale)을 측정하여 호전도를 나타내었다.

입원당시 환자는 오심감으로 인해 3-4시간 간격으로 구토가 발생하였으나 입원 후 익일 상기 증상은 소실되었다. 두통은 2020년 04월 03일에 NRS 7점, 2020년 04월 06일에 NRS 4점으로 감소하였으며, 퇴원 시에는 소실되어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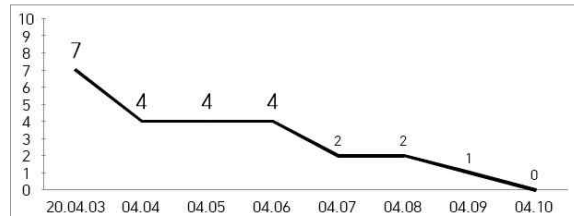


Fig. 1. Change in numeral rating scale (NRS) of headache.

또한 입원 5일 전부터 상기 증상으로 인하여 자의로 경구 식이를 하지 않았으며 2020년 04월 05일 중식에 Soft diet를 시작으로 당일 석식부터 오심감 감소로 General diet로 경구 식이를 할 수 있었다. 입원 당시 공복 상태로 오심감 소실 상태였으나 2020년 04월 05일 중식부터 경구 식이를 시작하면서 오심감이 미약 상승되는 증상을 보였다. 五苓散에서 健脾和胃하도록 하는 효능을 더하기 위해 胃苓湯으로 바뀌어서 투약한 결과 오심감은 다시 소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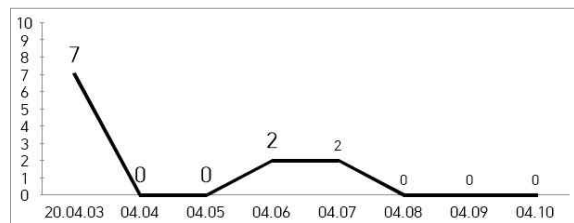


Fig. 2. Change in numeral rating scale (NRS) of nausea.

IV. 고 찰

한약 치료의 경우 오심과 구토 증세가 장관 내 병변으로 인한 소화불량의 임상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保和湯, 二陳湯 加味方, 半夏瀉心湯 엑기스 제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여 호전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들 처방은 消食導滯 및 溫化痰飲의 작용으로 오심, 구토를 동반한 통상적인 소화불량증에 대응 되는 처방이다⁸⁻¹⁰.

본 증례의 환자는 당일까지 3-4회/1일 구토를

하던 환자로, 갈증을 호소하였으나, 물만 마셔도 토하는(水入則吐) 양상을 보였다. 환자 초진시에 두부 전체부위 깨질 것 같은 NRS 7 강도의 통증 자각 중이었으며, 와위 안정시 3-4시간 간격으로 오심 자각 직후 구토 양상을 보였다. 복진 소견으로는 心下部 타진시 胃中 振水음이 확인되었으며 面色은 노란빛을 띄었고, 舌診시 淡紅, 苔白, 脈浮하였다. 이후 음식물 섭취 및 음수시 구토 및 오심감 발생으로 2020년 04월 03일부터 2020년 04월 05일 아침까지 NPO하였다.

구토는 그 원인에 따라 뇌종양, 뇌출혈, chemoreceptor trigger zone(CTZ)를 통한 자극 등에 의해 나타나는 중추성 구토와 소화기 질환, 구강, 인두, 인후부 및 내이의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말초성 구토로 나눌 수 있다. 환자가 입원당시 타원에서 검사한 Brain CT 검사상 별무소견 진단받았으며 신경학적 증상이 별무하여 중추신경계에 의한 구토를 배제하였다. 또 어지럼증 등 전정기능계의 이상 증상이 별무하여 내이의 이상을 배제하였으며, Lab finidng 상 WBC, CRP 정상수치로 확인되었고 발열이 없어 감염성 질환도 배제하였다. 이상의 과정으로 이 환자의 증상을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진단하였으며, 水逆證으로 변증하여 五苓散을 사용하였다. 五苓散은 『中風發熱 六七日不解而煩 有表裏證 渴欲飲水 水入則吐者 名曰水逆 五苓散主之』라 하여 수역증으로 인해 오심, 구토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¹¹. 病因이 痰, 火, 食, 鬱, 寒이 아닌 水邪가 上逆한 것으로 이름을 水逆이라 하였다. 水邪가 下焦를 막아 氣化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위로는 胃를 팽박하여 토를 하게 되는 것이다⁴.

五苓散은 表證과 함께 水濕이 정체되어 나타나는 頭痛發熱, 煩渴引飲, 水入即吐, 小便不利, 水腫, 霍亂吐瀉 등 체내 수분 대사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증상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며, 발열 증상이 없더라도 체내에 수분이 정체나 편재가 있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¹². 수분의 정체가 소화기 조직에 발생하면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

는데, 소화관의 습체로 인해 소화기 조직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소화액을 분비하는 기능과 음식을 흡수하는 기능이 저하되어, 더 이상 음식을 받아들이기 곤란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심과 구토가 발생하는 것이다¹³. 본 증례에서 水腫, 小便不利 와 같은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煩渴引飲, 水入即吐, 頭痛와 같은 水滯 증상이 관찰되었는데, 煩渴 및 頭痛이 동반되는 嘔吐에 오령산을 사용하는 것이 水液代謝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嘔吐의 증상까지 치료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오심, 구토에 대한 五苓散의 치료 근거로는 부인과 수술 전 五苓散을 복용시킨 결과, 수술 후 24시간 이내의 오심 및 구토의 경감효과를 확인¹⁴하였으며,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등의 약물로 유발된 오심 및 소화불량에 五苓散을 투여하여 총 20명 중 15명에서 증상 개선 효과를 보였고, 부작용도 관찰되지 않았다¹⁵는 보고가 있다.

본 증례에서는 특별한 기질적 원인이 없이 두통을 동반한 오심, 구토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한약 투여가 임상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다만 본 증례는 환자 1명을 대상으로 한 증례라는 한계점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에 대한 五苓散의 효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안지원. PACIFIC Internal Medicine. 서울: 퍼시픽북스; 2010, p. 51-2.
2. Shin JE. Diagnosis and Treatment of Functional Nausea and Vomiting.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e* 2012;2(5):543-8.
3. Talley NJ. Functional nausea and vomiting. *Aust Fam Physician* 2007;36(9):694-7.
4. 전국한의과대학 비계내과학교실. 비계내과학. 서울: 군자출판사; 2008, p. 87, 114, 114, 39.

5. 劉渡舟傷寒論講義. 경기: 물고기숲; 2014, p. 175.
6. Hejazi RA, McCallum RW. Review article: cyclic vomiting syndrome in adults—rediscovering and redefining an old entity. *Aliment Pharmacol Ther* 2011;34(3):263-73.
7. Quigley EM, Hasler WL, Parkman HP. AGA technical review on nausea and vomiting. *Gastroenterology* 2001;120(1):263-86.
8. Kim DW, Choi BH, Hur JI, Park K, Kim DJ, Byun JS. Evaluation for Therapeutic Effectiveness of Bowhatang in Functional Dyspepsia. *The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2006; 14(2):97-108.
9. Kim BS, Lim HY, Kim DW, Choi BH, Hur JI, Kim DJ, et al. Three Cases Report of Functional Dyspepsia Patients Who were Administered by LJTG(Ljintang-Gamibang(二陳湯 加味方)).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Internal Medicine* 2005; 26(3):641-51.
10. Ryu BH, Ryu KW, Kim JS, Yoon SH. Evaluation for Therapeutic Effectiveness of Banwhasashim-tang in Functional Dyspepsia.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Internal Medicine* 2003;24(2):329-36.
11. 南京中醫藥大學 傷寒論教授研究室. 傷寒論臨床學習參考.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2002, p. 9.
12. 노의준, 강한은. 古方類聚. 서울: 도서출판 고방; 2009, p. 242.
13. 이종대. 30처방으로 보는 한방병리. 서울: 도서출판 정담; 2010, p. 643.
14. Kori K, Oikawa T, Odagochi H, Omoto H, Hanawa T, Minami T. Go-rei-San, a Kampo Medicine, Reduces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A Prospective, Single-Blind, Randomized Trial. *J Altern Complement Med* 2013 Jul; 9(12):946-50.
15. NEO 핸드북 편집위원회. 한방병원 전공의 및 관련의료인을 위한 NEO 인턴핸드북. 서울: 군자출판사; 2016, p. 621.